



권혜원 작 '바라케이드에서 만나요'

두 번의 비상계엄...사회 모순·부조리 새기다

5·18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을 앞두고 1980년과 2024년 등 두 번의 비상계엄을 중심으로 인간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 합리와 희망의 공존에 대해 탐구하는 전시가 마련됐다.

28일 광주시립미술관 (관장 윤익)에 따르면 '공명-기억과 연결된 현재'라는 타이틀로 한 2025 민주인권평화전이 지난 18일 개막. 8월 17일까지 본관 제1~2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전시는 사운드·미디어아트 5점, 1980's 미술·음악 아카이브 및 2024 미술·음악 아카이브 등으로 구성됐다.

전시 타이틀인 '공명-기억과 연결된 현재'는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의 수상 강연에서 영감을 받아 정해졌다.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라는 질문이 전시의 핵심 주제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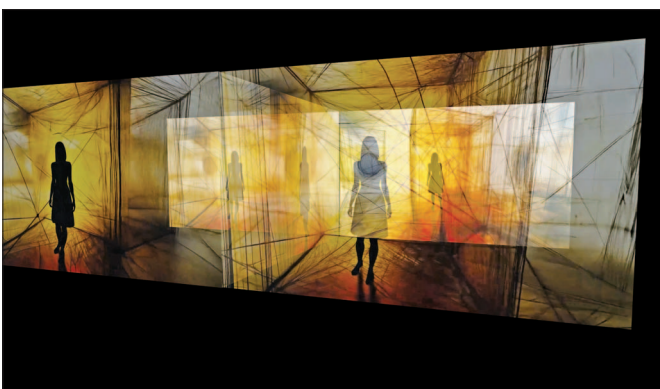
사운드아트 및 미디어아트 작품들과 음악을 소재로 한 아카이브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역사적 사건과 시민의 목소리를 시각적으로 담아낸다.

총 5점의 사운드아트-미디어아트 작품은 5·18과 2024년 계엄이라는 사건을 다층적인 서사와 선명한 색채로 풀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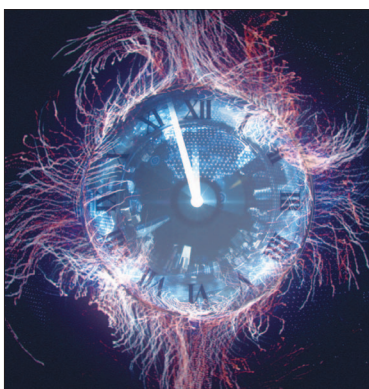
관객의 목소리를 빛으로 전환하는 인터랙티브 설치물, AI가 재해석한 역사 이미지와 텍스트 기반의 시, 그리고 가상 라디오에서 흘러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는 각각 저항과 연대, 공감의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다. 작품들은 관객이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참여하는 공간으로 전시장을 탐방케시킨다.

전시장 도입부의 아카이브전은 1980년대와

광주시립미술관, 8월 17일까지 민주인권평화전
신도원·임용현 등 5명 작품...오월정신 공감 기대



신도원 작 '나-기억의 투영'



임용현 작 '발화의 등대'

2024년을 연결하는 음악의 사회적 의미와 변화를 조명한다. 전시장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과 '오월의 노래', '광주출전기', '그날이 오면' 등 총 20여 곡이 플레이리스트로 구성돼 전시장 곳곳에 울려 퍼진다. 이를 통해 '음악의 기억'이 사공간을 넘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람객의 정서적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2024년의 시위 현장을 재현한 전시 후반부 공간에서는 민중가요, 개사곡, K-팝, 클래식 등까지 다양한 장르가 혼재된 시민들의 음악 문화를 보여준다. 여기서는 단순히 시위 현장의 음악이 장르적 다양성을 선보였다는 의미 이상을 말하고 있다. 현장의 시민들이 수용자로서 음악을 받아들이

는 문화 소비자에서, 재해석의 주체로 격상돼 새로운 창작자로 변화하게 된 현상을 조명한다. 관객(독자, 관람객)은 더 이상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의미를 생성하는 창작 주체임을 확인하게 된다.

출품 작가는 권혜원, 성기원, 신도원, 임용현, 양민하씨 등 5명이다.

19세기 파리에서 시작된 바라케이드의 의미를 현대 시위 현장과 연결하고, 저항과 연대의 정서를 영상과 사운드로 구현하고 있는 권혜원의 '바라케이드에서 만나요'는 전 세계 시위 현장에서 들려온 저항가요의 서사를 예술적으로 재구성했으며, 성기원의 'HLK5C18 여기는 라디오 광주'는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시작해 미래로 전파를 쏘는 가상의 디지털 라디오라는 설정을 통해 역사와 현재의 메시지를 연결하는 라디오 설치작품이다. 관객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시간의 간극을 넘는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다.

이어 신도원의 '나-기억의 투영'은 반투명 스크린에 투사되는 영상과 음향이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으로 구성된 참여형 미디어 설치작품이다. 관객 스스로가 해석의 주체로 참여, 기억과 상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몰입형 공간을 연출하고 있으며, 임용현의 '발화의 등대'는 관객의 목소리를 감지해 빛으로 반응하는 대형 인터랙티브 설치 작품이다. 개인의 발화가 어떻게 공공의 빛이 돼 확산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민주주의의 상징으로서 '목소리'의 의미를 되새긴다. 이외에 양민하의 '그대와 그대의 대화'는 1980년대 광주와 2024년의 뉴스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생성한 텍스트와 이미지로 구성된 AI 기반 설치작품으로, 기계가 재현한 인간의 기억을 통해 감정과 서사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제시한다.

윤의 관장은 "민주인권평화전은 음악과 미술을 통해 예술가들과 시민들의 사회적 발언과 참여의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예술이 가진 보편성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5·18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이해 광주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과 시민들이 이번 전시를 계기로 우리 시대의 아픔과 이를 극복한 오월정신에 대해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CULTURE

2025년 4월 29일 화요일

ACC. 문화예술 유망주 지원
지역 관련 대학 학과 대상 공모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은 호남지역 대학 문화예술 관련 학과를 대상으로 졸업 전시를 오는 5월 16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ACC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ACC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문화예술 분야의 유망주이자 예비 청년 예술인을 키워내는 전공 학과의 졸업 전시를 지원한다.

올해 열리는 ACC 대학 졸업전시 제목은 '윤슬정원'이다. 지난해 개최한 '오색윤슬'의 연속사업으로 문화예술 분야 전공 학생들이 ACC 대나무 정원에서 썩 틈우는 잠재력을 '빛에 반짝이는 잔물결'이라는 뜻의 '윤슬'에 비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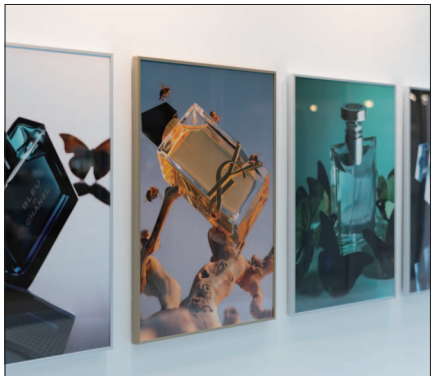
공모 대상은 호남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문화예술 관련 학과로, 전시가 가능한 분야에 한한다. 최종 선발된 4개 학과에는 ACC의 관람객 휴식 공간인 문화정보원 대나무 정원을 전시 공간으로 무상 제공하며, 전시장 구축부터 전시 개막행사 개최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전시 기획서를 기반으로 한 프레젠테이션 시사를 거쳐 평가할 계획이다.

전시기간은 오는 10~12월 중 학과별 1주일씩 총 두 달여 간 릴레이 형태로 진행된다. 최종 선정된 학과 참여 학생들에게는 전시 준비 및 운영 과정의 협업 기회를 통해 현장 실무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기간은 오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이며, ACC 누리집 해당 공고문의 지원하기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진행된 호남지역 예술대학 졸업전시 공모 '오색윤슬'에는 광주대 사진영상학과, 순천대 영상디자인학과, 전남대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 호남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및 시각디자인학과(이상 5개 학과)의 졸업예정자 100명이 졸업 전시에 참여했다.

김다경 기자 alsqsl94@



2024년 ACC 대학 졸업전시 '오색윤슬'에 참여한 광주대 사진영상학과와 미술학과의 작품들.

하정웅컬렉션 전시 연계 특강 마련

오늘 윤진섭 미술평론가 초대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은 2025 하정웅컬렉션 '단색화: 무한과 유한' 전시와 연계한 특강 '한국의 단색화, 그 은근과 끈기의 세계'를 29일 오후 2시 하정웅미술관 2층 6전시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단색화'의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미술평론가 윤진섭씨를 초청해 진행된다.

윤진섭 평론가는 이번 하정웅컬렉션 전시 연계 특강을 통해 단색화가 단순한 미니멀리즘을 넘어 한국적 사유와 정신성을 담고 있는 예술임을 강조하고, 관련 작가와 작품 분석을 통해 단색화가 동시대 미술에서 어떤 가치를 갖는지 설명할 예정이다.

윤진섭 평론가는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미술 평론가이자 미술사학자로 홍익대 회화과 및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호주 웨스턴 시드니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한국 미술계에서 비평의 지평을 넓힌 인물로 평가받으며, 한국 단색화와 실험미술 및 개념미술

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로 주목받아 왔다. 평론가로서 뿐만 아니라 '제1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큐레이터와 서울미디어아트비엔날레와 창원 조각비엔날레의 총감독 등 기획자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윤진섭 평론가는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장과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며, 공공기관 및 미술기관의 자문 역할도 활발히 수행해왔다. 저서로는 '글로벌리즘과 아시아의 현대미술', '한국 모더니즘 미술연구', '단색화-미학을 말하다' 등이 있으며 '광주비엔날레' 유공 대통령 표창, 제8회 하정웅미술상 평론가상, 국제미술평론가협회(AICA) 명예공로상 등을 수상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그린알로에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